~~~~

SKT 구성원, 응급 시 현장 구조사로 나선다

**- 全 구성원 대상 응급처치 교육… ICT Family 전체 총 6,000명 이상 참여 목표**

**- 이사진도 솔선수범해 교육 참여...구성원가족, 협력사 직원까지 교육 확대**

**- 응급처치 교육 수료 SKT구성원이 일반시민 구조하는 실제 사례도 나와**

|  |
| --- |
| **엠바고 : 배포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.** |

**[2023. 5. 31]**

SKT 구성원들이 응급 상황 시 구조사로 나설 예정이다.

SK텔레콤(대표이사 사장 유영상, www.sktelecom.com)은 5월까지 자사 구성원 대상 ‘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실습교육’을 실시했으며, 올해 총 1,100명이 교육을 수료했다고 31일 밝혔다.

질병관리청과 소방청에 따르면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\*은 매년 꾸준히 상승해 2021년 기준 28.8%까지 올랐다. 또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을 때 생존율은 미 시행 시 보다 약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\*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: 병원 도착 전에 '근무 중인 구급대원 및 의료인'을 제외한 일반인에 의해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급성심장정지(심장 활동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멈춘 상태) 환자의 비율

이에 SKT는 지난해부터 응급처치 실습교육을 시작, 구성원들에게 하임리히법\* ∙ 심폐소생술 ∙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응급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처치방법에 대한 강의 및 실습을 제공하고 있다.

\* 하임리히법 : 음식이나 이물질로 인해 기도가 폐쇄 또는 [질식](https://namu.wiki/w/%EC%A7%88%EC%8B%9D)할 위험이 있을 때 흉부에 강한 압력을 가해 토해내게 하는 방법

지난해에는 약 1,000명의 SKT 구성원이 해당 교육을 수료했으며, 올해는 작년 대비 교육 횟수를 약 2배 이상 늘려 연간 약 2,200명 이상의 SKT 구성원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.

또한, 응급처치 교육에는 SKT뿐만 아니라 SK브로드밴드, SK오엔에스, 홈앤서비스 등 ICT Family사도 동참해 올해 총 6,000명 이상 교육 수료를 목표하고 있다. 지난해의 경우 SKT를 포함한 ICT Family사 구성원 약 3,000명이 교육을 수료한 바 있다.

특히 5월에는 응급처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구성원의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유영상 사장과 김용학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SKT 이사진이 솔선수범해 교육에 참여했다.

SKT는 올해부터 SKT 구성원 가족과 SKT 사옥 내 시설 및 환경관리, 사내복지 등을 담당하는 협력사 직원들을 위한 교육을 준비하는 등 교육 대상을 확대해 응급처치 실습교육을 진행 중이다.

SKT는 응급처치 실습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옥 내 자동심장충격기를 추가로 배치하기도 했다.

SKT의 구성원 대상 응급처치 실습교육이 진행되며, 교육을 수료한 SKT 구성원이 응급 상황에서 일반시민을 구조하는 사례도 나왔다.

지난 4월 서울시 은평구의 한 식당에서 젤리로 인해 기도가 막힌 어린아이에게 SKT 구성원이 회사에서 배운 영유아 하임리히법을 시행해 질식 위기에 처했던 아이를 구한 바 있다.

SKT는 해당 사례를 사내에 공지해 구성원들의 응급처치 실습교육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, 지속적인 응급처치 교육을 위한 확대 운영안을 검토 중이다.

강종렬 SKT CSPO(Chief Serious-accident Prevention Officer, 안전보건 최고경영책임자)는 “구성원들에게 응급 상황 대처 방법을 교육하는 것은 사업장 내 임직원의 안전은 물론 SKT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”이라며, “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 확대를 통해 구성원들이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도록 지원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|  |
| --- |
| **※ 사진설명**  SK텔레콤은 자사 구성원 대상 ‘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실습교육’을 실시, 5월까지 1,100명이 교육을 수료했다고 31일 밝혔다. SKT는 올해 ICT Famaily 구성원 대상으로 총 6,000명 이상 교육 수료를 목표로 하고있다.  사진1: SK T타워에서 유영상 사장(사진 앞줄 가운데)과 김용학 이사회 의장(사진 앞줄 오른쪽 첫번째)을 비롯한 SKT 이사진이 응급처치 교육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.  사진2: SK T타워에서 유영상 사장(사진 앞줄 왼쪽 첫번째)을 비롯한 SKT 이사진이 응급처치 교육을 받고 있다.  사진 3: SK T타워에서 SKT 협력사 직원들이 응급처치 교육을 받고 있다. |

**▶ 관련문의 : SK텔레콤 PR실 혁신PR팀 정 욱 매니저 (02-6100-3881)**

